"아세아-태평양 심장혈관 중재시술 심포지엄"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아세아-태평양 심장혈관 중재시술 심포지엄(APCIS: 대회장 이명묵)이 지난 5월 25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성인 및 소아 심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기법과 중재시술의사를 위한 심장의 해부병리학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대동맥질환을 포함한 심장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선천성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기법을 시연,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Hearts-on-Hands Center (심장 체험 센터)가 새롭게 마련돼 심포지엄 기간 중 심장을 직접 만져보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2년 전통을 가진 선천성 심장질환 세미나인 3-Day Seminar는 25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진행됐다. 이어 26일과 27일에는 성인의 심혈관질환과 말초혈관질환, 소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중재적 시술의 시연, 최신 지견

▼ 2017 APCIS 모습.

▲ Hearts-on-Hands Center _심장 체험 센터 모습.

의 발표, 증례 토론, 영상의학과 부검 심장의 비교 등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와 관련한 최신 발전을 토론했다.

미국 Drexel 대학 병원의 심부전과 심장이식 전문가 4명과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5개 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심장 중재시술 분야의 국제 교류에도 큰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명묵 대회장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중재시술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시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강의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최근에는 부검이 매우 드물어 이번에 공개하는 500여 개에 달하는 부검 심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 대부분이며, 10년 전에 사망한 이들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심장 이식의 증가로 성인 심장병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검 심장 교육 및 연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이어 "Heart-on-Hands Center는 심장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편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 15개국의 소아 및 성인심장 의사를 포함하여 국내외 350 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은 세종병원 설립자인 우촌 박영관 박사와 기타 출연자들이 뜻을 모아 2013년 설립한 비영리 연구지원재단으로, 심뇌혈관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국내외 의료인의 교육 지원, 국내외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문윤희기자/MP저널